

32장(1)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과 모세의 중보 기도

32-34장에서는 성막에 관한 규례를 내려 주신 일(26-31장)과 성막 건설(35-40장)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내려 주시고 계실 때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를 부인한 것은 아니나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들과 함께하시려고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신 일이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으로써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파괴되었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으로 계시하시면서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이다.

1. 금송아지를 만들 (32:1-6)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맺은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40일 동안에 내려 주셨다. 성막에 관한 규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들이 아침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집에 관한 설계도를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시내산 아래에서는 여호와에게서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한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요구하였다. 얼마 전에 여호와께서 임위를 나타내시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 20:19) 하고 말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를 배반한 것이다.

아론이 백성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들은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던 금고리를 가져왔다. 그 금고리를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각도로 새겨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여호와이시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세가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였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 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 주시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나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바르게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것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다. 24장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는 여호와의 발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렸는데(24:11), 여기에서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방탕과 방종을 즐기는 데에 빠졌던 것이다.

2. 모세의 중보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 (32:7-14)

여호와께서는 산 아래의 이스라엘이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 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한다고 하셨다. 십계명의 서문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하고 대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

다.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제안하셨다.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서 세 가지로 대답하였다. 첫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주님’ 이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 이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모세는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둘째, 여호와와 명예를 들어서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이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족장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세는 백성이 자기를 배신한 사실을 놓고서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와 언약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32:14).

목상과 실천:

금송아지 숭배와 십계명의 서문과 제2계명

1. 주체의 문제 - 십계명의 서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언약대로 그들과 함께 지내시려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고 계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한 데에는 신비한 요소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반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을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모세는 ‘주체’ 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말하였고(32:1)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는 그것이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였다(32:4).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들려 주셨다(32:7,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시조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주신 사실을 아뢰었다(32:11).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친히 구원하신 사실을 친숙히 알지 못하면 모호하게 말하게 되고 어려울 때에는 쉽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게 됨을 여기에서 본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르게 알았던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에도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2. 자기 행복의 문제 - 제2계명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무런 형상도 보여 주시지 않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고 명령하셨다. 제2계명의 명백한 명령이 있으나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한다.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들을 만드는데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모두 그들의 행복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마음에 자기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을 만들고 손으로 그것을 만들고, 형상으로 만든 신을 조정하여서 자기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으신 분이므로 그분을 형상으로 표현하면 다른 신이 된다. 여호

와를 형상으로 만들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고, 그의 백성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여호와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 라고 부르신다. 신명기 4:23-24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그 이유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고 가르쳐 주셨다. 형상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내려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된다. 질투하실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 하겠다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실 정도로 두려운 일임을 여기에서 배운다.

3. 모세의 중보 기도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는 출애굽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며,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들어서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애굽에서 인도한 자라고 잘못 알고서 말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으나 모세는 자기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실, 여호와와 명예와 언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무리한 재판을 받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기의 이름과 관련하여서는 끝까지 침묵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자기의 이름과 관련된 일에서는 매우 민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만 그 자리에서 피하여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영예와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

32장 (1) 익힘 문제

1. 1)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 2)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렀습니까? (4절)
- 3)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다음 날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였습니까? (5절)
- 4) 아론과 백성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한 그 날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5, 6절)
2. 1)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 9절과 비교하여 써 보십시오 (7절)
- 2) 여호와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9절)
- 3)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누구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0절)
- 4)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절될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서해 달라고 근거로 든 것은 무엇입니까? (11, 12절)